

“장자가 다시 태어나 강의해도...”



장자 남화경
탄허 스님 지음 | 교림 | 5만원

유불선에 정통했던 탄허 스님(1913~1983)의 <남화경> 강의 책과 3장의 CD로 묶여 나왔다. 교림출판사 서우담 대표가 발견해 정리한 이 원고는 탄허 스님이 제수 29세인 1941년에 집필한 것으로, 스님이 남긴 원고 중 가장 초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

문이 아닌 '내편 7권'에 대한 원고 1천3백여 매만 발견했다는 사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CD에는 스님의 <남화경> 강의를 녹음한 테이프 내용을 가려 담았다.

흔히 <장자>로 널리 알려진 <남화경>은 중국 전국시대의 전설적인 도가사상가 장주(莊周)가 지은 것으로 내편 7권, 외편 15권, 잡편 11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탄허 스님은 세속적인 관습과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자유로운 인간이 될 것을 강조하는 노장사상을 불교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출가 전부터 유교와 도교에 관심을 갖고 관련 서적을 탐독했던 탄허 스님은 한암 스님과 3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은 끝에 출가했다. 출가한 이듬해부터 3년간 묵언집심으로 옹맹정진했던 스님은 한암 스님으로부터 불교 경전을 배운 후 '출가 속제'로 여겼던 <남화경>을 천 번이나 읽기도 했다.

책을 펴낸 서우담 대표는 "시중에 30여 권에 달하는 <남화경> 해설서가 나와 있지만, 탄허 스님처럼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현토를 단 것은 처음이다"고 출간 의미를 밝혔다. 탄허 스님의 수법(受法)제자인 무비 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은 책사에서 "외편과 잡편이 함께 나오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탄허 스님의 <남화경> '내7



탄허 스님이 1977년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에서 강의하는 모습.

권'은 우리 시대를 가로지르는 단 하나의 대들보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각성 스님(화엄학연구원장)과 통광 스님(장계사 강주), 손상좌 현해 스님(동국대 재단이사장) 등 탄허 스님의 제자들도 추사를 통해 스승에 얽힌 다양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오대산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은 '인간 국보'라 불렸던 탄허 스님(전 동국대 교수)이 제자들과 함께 탄허 스님을 찾아와 <남화경> 강의를 들은 후 "만약 장자가 다시 태어나서 강의한다면 해도 탄허선사를 크게 능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허 스님이 "이 같은 스님의 가르침을 육성 그대로 엮은 것은 후학을 위해 무척 다행한 일"이라고 말한다.

책에는 1편 '소요유(逍遙遊)'에서 7편 '응제왕(應帝王)'에 이르기까지의 본문과 구절 해석, 뜻을 풀이한 차례로 담았다. 책 뒤편에는 <남화경> 원문과 스님의 행장을 정리한 '탄허 대종사 생애와 사상'을 덧붙였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탄허 스님 천번 정독 후 꼼꼼한 현토 '내편 7권' 원고에 육성 강의 CD도



‘마음공부’ 잘 하는 길 안내

초갑 트루파의 마음공부
초갑 트루파 지음
이현주 옮김
열림원 | 1만1천원

최근 '수행 열풍'과 '웰빙 바람'을 타고 거리마다 명상센터들의 광고 전단들이 너분고 서점에는 명상 서적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정한 명상과 수행의 방법을 가려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선보인 <초갑 트루파의 마음공부>는 명상이 '상품'으로 전락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이 책은 티베트 승려이자 미국 '삼팔파 명상센터'의 설립자인 초갑 트루파(1940~1987)가 1970년 가을에서 71년 봄까지 미국 콜로라도 불테 명상센터에서 한 강의 내용을 묶은 것으로, 마음공부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명상 안내서'다.

하지만 그는 책에서 중앙적 사상에 대한 상업주의적 접근은 '영적 슈퍼마켓'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한 예로 그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대상을 개념화하고 감정을 조작하는 인위적인 모습을 '영적 유토피아

(spiritual materialism)'이라 지적하고 있다. "마음 공부란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미망(迷妄)을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몇 가지 수련 방법을 익혔다고 해서 스스로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게끔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영적 유토피아는 바로 이 '나'에, 'ego'가 따로 있다고 믿는 집착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지은이는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므로, '나'라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단언한다. 그런데 이 마음 공부를 끊임 없이 방해하는 훼방꾼이 세 가지 있으니 바로 '모양의 군주' '언어의 군주' '마음의 군주'다. 세 군주는 육체의 안락과 안정, 쾌락에 대한 추구를 뜻한다. 이들 훼방꾼을 따돌리는 방법이 바로 명상이라고 지은이는 말한다.

책에서는 "끊임없는 갈망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기만의 꿈에서 깨어나기" 등 16개의 장에 걸쳐 마음 공부가 나아가는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한다. 각 장의 끝에는 질문과 답변을 두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여수령 기자

어린이 불교 안내서 펴낸 김광호 법사

"불교가 뭐예요?" "법당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 곳곳에서 부모나 선생님을 향해 불쑥 불쑥 쏟아내는 어린이들의 궁금증.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불교안내서가 나왔다. 부산 금곡사 초등불교학교 교장으로 어린이 포교 일선에서 10년째 활동하고 있는 현묵 김광호(53·사진) 거사가 어린이들을 위한 불교안내서 <엄마 따라 절에 가자>를 펴냈다.

현묵 거사의 현장감이 살아 있는 설명이 돋보이는 이 책은 351쪽을 전부 컬러로 처리해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대부분 삽화로 처리하고 있는 기존 안내서들과 뚜렷이 차별화 되는 사진 자료들이 꼼꼼하게 배치되어 불교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사찰의 기원과 구조부터 절에서의 예절, 부처님의 일대기와 가르침, 불교미술과 상징물, 불교의 세계관과 수행법에 이르기까지 단숨에 알아도

불교가 궁금해?

엄마따라 가보면 알지!

록 구성돼 있다.

이 책의 출판물 둘러싼 몇 가지 일화들은 책의 성격과 특징을 잘 말해준다. 어린 시절 엄마의 손을 잡고 절을 찾았던 혜성출판사 김상일 대표는 사찰 곳곳에서 부딪힌 궁금증을 풀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고, 출판사 대표가 된 이후 어려운 불교를 쉽게 가르쳐주는 책 출판을 화두로 삼아왔다. 50명이 넘는 스님들과 불교전문가들을 만나며 저자를 모색하던 중 톡톡 튀는 설명으로 어린이들에게 불교 상식을 전하고 있는 현묵 거사를 알게 됐다.

권당 제작비용 3만8천 원, 판매가 2만5천 원. 뽀뽀 보이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10년 뒤를 바라보며 책을 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김 대표와 직장까지 그만 두고 어린이 포교에 열정을 쏟아왔던 현묵 거사가 만나 이책이 탄생했다.

"어린이들이 불교를 친구처럼 친근하게 느끼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강조한 현묵 거사는 "누구나 불교를 쉽게,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만든 이 책이 불교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 나아가 포교로 이어진다면 더 바랄 게 없었다"고 포교에 대한 원력을 밝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엄마 따라 절에 가자

김광호 지음
혜성출판사 | 2만5천원



불교와 일반시스템이론
조애너 메이시 지음
이종표 옮김
불교시대사 | 1만5천원

美 생태학자가 본 불교와 사회시스템

미국의 생태철학자 조애너 메이시(Joanna Macy·사진)가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생명·환경·윤리 등의 문제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밝힌 책 <불교와 일반시스템이론>이 번역돼 나왔다.



지은이는 책에서 우리 시대를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로 규정하고, 불교와 일반시스템이론의 상호인과율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안한다.

불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사유구조와는 다른 사유 체계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지은이는 이를 '상호인과율'이라 정의한다. 그리고 이 '상호인과율'과 잇달아 일어나는 사건을 그들처럼 짜여 있는 회로에서 발생하는 상호적인 것으로 보는 '일반시스템이론'을 비교하고 있다. 일반시스템이론의 상호인과율과 불교의 상호인과율을 통해 역동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작용하는 인과의 과정들을 고찰할 수 있고, 이는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와 도덕적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철학적 토대와 도덕적 근거를 '실천'의 문제로 연결시킨다. 불교가 우리 시대의 문제점에 대해 제시하는 답이 무엇이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도서 10 책방 역시아름 집게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랜덤하우스중앙
2	가장 행복한 공부	정화 스님	시공사
3	문지 않는 질문	현묵 스님	민족사
4	선, 문밖에서 나서다	해탈 스님	여시아문
5	금강경 강송	김광호	운주사
6	참나	해거 스님	선문출판사
7	365일 부처님 말씀	윤창화	동승동
8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	우룡 스님	효림
9	육조혜능 평전	이은윤	동아시아
10	탁달한 스님의 금강경	탁달한	장경각

<바로보인 선문열송 제4권 출간>
『선문열송』은 세계 최대의 공안집으로서 1,454칙의 본 공안마다 여러 선사님들의 질문과 송이 달려 있다. 역저자인 대한문제연구소는 선문열송에 첨마다 도유문과 송으로 휘모검을 휘둘러 범문의 참 의의를 숨어있는 공안창구의 깊이가 역활을 하였다.
www.zenparadise.com
02-597-2460 도서출판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을 최가적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립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 중독, 나병, 알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 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정지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몸계 精進하시우기를 祈願 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龍隱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 山蔘

무료진단과 공개강좌 개시

인간이 질환 없이 살 수는 없을까?
한국 전통 기문미래 연구학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새로운 건강관리 운동에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물품을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 요즘 한창 성황중인 임상 흥체학은 무엇인가? ◎
“최첨단 눈 동공에서 찾을 수 있는 건강 진단 방식”
현대 중앙병원 대체의학 연구소에서 왜 연구를 지속할까?
카이트 공용진교수와 팔상 체질의학 창시자인 권도원 박사님의 체질 진단 공동개발 프로젝트 개발

- 자연치유 의학에 시작, 지구촌 자연의학 바람 거세다. (중앙일보 2004년 1월 25일자 기제)
- 자연치유 영양요법은 공해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강사: 경희대출, 유니피아 흥체 자연치유학회 전문위원, 침코리아 흥체 강 의 중)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선착순 20명 제한 접수 / 연락처 02) 454-3368

사주학 무료강좌

매주 화요일부터 수, 목, 금,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 규봉선생과 소인선생 직강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
평생 직업! 오후 2시부터는 특강반 모집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하게 사주, 작명, 인상학, 공학, 택일,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 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선착순 20명 제한 접수 / 연락처 02) 454-3369